

제트 특허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

세계 최대 면도날 제조업체인 질레트가 몇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신디아사(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시카고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디아측이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개인발명가인 제롬 레벌슨의 소유였다가 신디아로 넘겨진 것으로 면도날에 "다이아몬드 유사 탄소(DLC)"를 코팅해 더 얇으면서도 강한 면도날을 만드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질레트는 마하3, 마하3 터보, 비너스 등 몇가지 제품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신디아는 과거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달러를 지급받게 됐으나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디아는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거나 또는 적절한 사용료를 받고 질레트에 합법적인 특허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 당국, 램버스 부당 특허권 행사 혐의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한 혐의로 반도체 설계 업체 램버스를 제소했다.

FTC는 램버스가 지난 90년대 초반 JEDEC라는 메모리 업계 그룹에 소속되어 SDRAM 기술 표준을 개발하던 중 4년 이상에 걸쳐 관련 특허 보유 및 출원 사실을 숨김으로써 JEDEC로 하여금 램버스가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로 생각하도록 오도했다고 밝혔다.

JEDEC의 SDRAM 표준을 사용한 메모리 칩들은 PC, 팩스, 프린터,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 게임기, 개인용 디지털 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FTC는 또 램버스가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로열티를 인상함으로써 SDRAM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동시에 관련 기술을 사용한 다른 제품의 가격 양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램버스는 메모리 업계 내외의 기술 표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FTC는 이번 제소에는 약 10억달러 이상이 걸려 있는 램버스에 대한 메모리 업체들의 특허 소송 해결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램버스의 기술은 하이-엔드 PC와 네트워크 서버 등의 메모리 칩 속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램버스측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25%가 램버스의 고성능 메모리 및 로직 칩을 사용하고 있다며 업계 선도 업체임을 자인해왔다.

메모리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 히다치, NEC, 도시바 등은 램버스의 로열티 요구를 수용해 온 반면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은 부당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재 라이선스 계약하에 램버스는 한 해에 5000만-1억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출처 로이터

"FIFA에 손해배상 청구"

한일(韓日)월드컵을 둘러싼 KT(옛 한국통신)와 SK텔레콤간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KT와 국제축구연맹(FIFA)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

이다.

KT 양재수 월드컵 통신단장은 FIFA가 월드컵 공식후원사가 아닌 한국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FIFA가 SK텔레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KT는 FIF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T는 그동안 FIFA측에 'SK텔레콤이 월드컵 후원사가 아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니 제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개선조치가 없었다며 후원사가 수백억원을 지불하고 사들인 지식재산권을 FIFA가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FIFA는 후원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SK텔레콤이 한국축구협회 공식후원사도 아니면서 '한국축구의 힘 스피드 011' 등 교묘한 광고문구를 통해 축구협회 공식후원사인 KT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축구협회도 SK텔레콤측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법률검토를 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공식후원사만 월드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SK텔레콤 이희혁 프로모션 팀장은 "SK텔레콤의 광고는 FIFA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는 이번 월드컵의 핵심적 '문화현상'인 '길거리 응원'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들은 FIFA가 KT의 요구대로 SK텔레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강정호 교수(스포츠마케

팅)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매복 마케팅'과 관련해 미국법원에 일부 기업을 제소했다가 패소한 판례가 있다"며 "FIFA가 SK텔레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전 세계 기업들에 매복 마케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일기획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마케팅은 전 세계에서 응원단을 이용한 성공한 매복마케팅의 첫 사례"라며 "FIFA가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예방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M플러스텍, 넥센, 다음 등에 특허침해 소송

이메일 서비스업체인 넥센(orgio.net)과 코스닥등록 기업인 M플러스텍이 정보통신부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이메일 수신확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메일 수신확인은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을 수신자가 읽었는지의 여부를 발신자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다음은 물론 라이코스 네이버등 국내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와 일반 기업체들이 자체 이메일 서비스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M플러스텍 관계자는 "이메일 수신확인 특허등록은 이미 지난 2000년8월에 마쳤고 올 2월에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 넥센이 특허권을 완전히 취득한 상태"라며 "이미 일부 업체에는 지난 2000년 10월에 1차 경고장을 발송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M플러스텍과 넥센은 지난 15일 특허권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넥센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메일 수신확인특허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며 일본에서는 특허를 출원중에 있다.

수신 확인기능은 현재 이메일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필수적인 기술로 현재 9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메일 시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기능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1차적인 소송 대상인 다음을 포함해 프리챌 네이버 등 이메일서비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 역시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의 불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매일경제

농협대구본부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각종 홍보물에 농협 마크나 명칭 불법사용을 비롯, 농협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판매원’ 등 유사 명칭 표시행위, 농산물이나 가공식품판매때 직원 사칭(명함사용), 상표권한이 없는 제3자가 농협상호를 사용한 언론 광고 행위 등이다.

농협은 상표도용 신고자에게 5만원짜리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했다.

이와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 상표 도용이나 직원 사칭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상표를 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농협” 상표 도용 3배나 급증

올들어 ‘농협’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나 농협이 특별단속과 함께 상표 보호활동에 나섰다.

농협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농협 상표 도용행위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8건에 비해 3배이상 급증했다.

농협 상표 도용은 각종 농산물의 포장재, 간판, 차량, 홍보물에 농협 마크나 명칭을 무단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불법적인 상표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믿음이 있는 농협의 신뢰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포트리스-건바운드 저작권 논란

회원수 1천만명에 육박하는 온라인게임 포트리스2블루와 3차원 온라인 슈팅게임 건바운드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CCR(대표 윤석호)은 서울지방법원에 “소프트닉스와 넥센이 포트리스와 유사한 게임인 건바운드를 만들어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배포하고 있다”며 제작사인 소프트닉스와 게임배급사(퍼블리셔)인 넥센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CR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탱크와 포탄 캐릭터 등 구성 요소의 내용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은 물론 게임방식과 화면 등도 너무 유사해 건바운드를 포트리스 게임의 표절로 볼 수밖에 없

다”고 주장했다.

CCR측은 또한 “건바운드 개발책임자인 강 모씨는 원래 포트리스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허락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한 것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CR측은 특히 “건바운드가 신생 게임이고 아직 수익도 없어 굳이 저작권 문제로 큰 돈을 벌 것도 아니지만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닉스측은 “개발자들이 초기 CCR 멤버들이었고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포트리스와 건바운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며 CCR의 주장을 반박했다.

포트리스는 2차원 게임인 반면 건바운드는 엔진부터 다른 3차원 게임이라는 것.

김진호 소프트닉스 사장은 “시장 논리상 포트리스와 똑같이 게임을 만들면 팔리겠느냐”고 반문하고 “일부 유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자들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프트닉스와 넥슨은 이르면 2주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는 상황에 맞춰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넥슨과 소프트닉스는 지난 5월 건바운드(www.gunbound.com)를 공동 서비스하기로 제휴를 체결하고 같은달 7일부터 공개시범서비스(오픈베타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출처 inews24

다 소리 특허침해 소송.. 야호, 경쟁업체 상대로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업체 야호커뮤니케이션

선(대표 이기돈)은 동종업체인 다날과 오사이오를 상대로 “음성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휴대전화기의 벨소리 선택방법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야호측은 소장에서 “양사가 우리와 같은 방식의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특허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날측 관계자는 “야호측이 주장하는 특허영역에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야호측의 특허권은 ARS로부터 벨소리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저장,고유한 휴대폰의 벨소리로 저장함으로써 타인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착신 벨소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출처 한국경제

“영무일환으로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삼성전자 전.현 직원 2명이 자신들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실시및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

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최씨 등은 98년 특허 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 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번 결정으로 본안소송에도 사측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 지(—), 인(1)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 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선인터넷업계 특허권분쟁 확산

무선 인터넷 업계에 일고 있는 특허권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선 무선 결제 방식을 둘러싼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 사이의 특허권 공방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또 벨소리 다운로드 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다날과 오사이오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옴니텔 위트콤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당장은 특허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이 커질 경우 특허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선 인터넷 업계에 특허권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무선 시장 규모 확대 △과잉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진입장벽 확보 등의 이유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는 “일부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권 행사를 검토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허권 행사는 낮은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 사이의 특허권 분쟁은 최근 모빌리언스가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포허브 측은 모빌리언스의 특허 획득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모빌리언스의 특허 획득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선행 특허권자로서 권리 범위 확인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 모빌리언스 측도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코스닥에 등록된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벨소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음성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선택기술’에 관한 특허권 행사에 나섰다. 야호는 우선 다날과 오사이오에 대해 각각 3억원과 2억원의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선 인터넷 업체들은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며, 특허권 행사는 차후 고려해 볼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무선 쿠폰, 서비스와 관련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옴니텔과 쉐러링 서비스로 유명한 위트콤도 특허권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다. 옴니텔 김경선 사장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는 있지만 무선 시장 전체를 키우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내외경제

발특2002/8